

고시는 성실이다

『학력사항』

- 광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1964년 제4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부 차관
- 대검찰청 검찰총장
- 제48대 법무부 장관
- 법무법인 코리아 대표변호사
- 자녀안심학교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고문



김 태 정

I. 첫 머리에

네 번 만에 합격했다.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지독히 합격기가 쓰고 싶었다. 그 때 썼더라면 거위가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아직 쓰고 싶었다. 아마 반쯤 거짓말이었을 거다. 세 번째 그 때도 거짓말을 썼을 것이다. 이번 4회째는 합격기를 쓰고 싶은 심정은 솔직히 말해서 없었다. 누가 자기의 우둔함과 무력함과 그리고 의지없음을 폭로하고 싶겠는가. 여하튼 합격기를 쓰고 있는 첫 머리에 미리 말해 버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은 거짓이 섞여 있으리라는 것이다.

II. 개성, 그리고 전체와 원리

대학 1학년 때던가 2학년 때, 그 때는 고시가 아직도 먼 것으로 생각되었다. 합격한 선배로부터 우연히 들은 말이 두 마디 있었다. 그 두 마디 말이 이제 생각하니까 진리(?)였다. 한 선배에게 누가 공부방법을 묻자 좀 거만한 말로 대답하기를 ‘그것은 개성’이라는 것이다. 정독이나, 다독이나, 공부시간은, 건강유지는, 이런 것을 묻는데, 그것은 개성이라고 짧게 잘라 버리니 아무래도 거만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개성’이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자.

나는 합격기 중에서 술한 합격자가 시험 전일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일관된 태도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어떤 합격자는 시험 전일을 거의 뜬눈으로 밤샘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최후의 정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반면 어떤 이는 다음 날을 위해서 푸근히 쉬었다고 한다. 전일에 서브 노트만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때에도 기본서만 붙들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다. 예상문제만 가려서 그것만 달달 외워간 사람도 있고, 육법전서의 조문만 훑어 보고 간 이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합격기로부터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법학공부는 정독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교수는 매번 그것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내가 아는 어느 합격자는 1일 1권주의의 다독자다. 나는 네 번이나 시험을 보았지만 평균 6번 이상은 읽어 보지 못한 조독파(措讀派)다. 나는 거의 2년 동안 각종 법률잡지를 한 권도 빠지지 않고 구독하였는데, 법률잡지라고는 한 권도 사보지 않는 분도 있다.

공부장소를 보자. 이번 4회 시험에 같이 합격한 22명 중에는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도 많지만 절에서 공부한 사람, 집에서 파고든 사람, 그 역시 가지각색이다. 나는 도서관 이용도 해보고, 절에도 가 보았고, 집에서도 공부해 보았다. 이를테면 모두를 골고루 경험해 본 셈이다. 나는 수험생활 중 다른 사람들의 합격기를 무척 즐겨 읽었다. 그 곳에서 합격한 사람들의 태도(공부방법같은 것)를 본받을려고 했으나 결국은 내 식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나는 수험생활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의 공부방법을 개선했으나 그 개선은 요컨대 성실의 가중의 문제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개성’이 전혀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 점에서 자기의 수험생활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 하는 것을 기피한 그 선배는 거만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선배로부터 들은 또 하나의 말은 ‘전체와 원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Ⅲ. 춘년 8월 20일의 상태

작년 팔월, 세 번째 사법시험을 마치고 고향(여수)에 내려가 있었으나 도저히 집에서 발표일을 기다릴 용기가 없었다. 부모님을 위시한 가족들 틈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일 용기(어쩌면 파렴치)는 이미 상실해 버렸다. 발표를 20여일 남겨놓고 여수에서는 꽤 떨어져 있는(경상도 쌍경사) 절로 들어갔다. 명목은 만일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도피였다. 책이 보아질 턱이 없었다. 산골을 헤매면서 매일매일 예상점수를 점치는 것이 일이었다. 계곡에서 목욕을 할 때도 마음은 무더위 속에서 내가 작성한 답안지에 있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방황하다가 잠이 든다. 시험의 명령은 꿈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그 놈의 꿈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만년필이 부서지는 꿈을 무던히도 꾸었다. 합격자 발표에 금시 내이름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내이름이 아니다.

8월 20일, 발표를 절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침 일찍 뛰쳐 나와 그날 정오 때 짙은 고향에서 백여리 떨어진 순천에 와 있었다. 신문을 보니 아직 발표가 나와 있지 않다. 어디 조용한 다방이라도 가서 1시 뉴스를 들을까 했으나 막상 그 시간에는 어느 술집에 있었다. 이미 결정은 나왔겠지 그러나 듣는 것이 무서웠다. 술상에서 젓가락이 떨어지는 것에 가슴이 덜컥한다. 술집에서 뛰쳐 나와 극장으로 향했다. 극장 정문에서 생전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이런 것을 물었다. ‘혹시 1시 라디오 뉴스에서 고시 합격자 발표를 듣지 못했습니까?’아!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창피한 물음이나? 그 남자, 기묘한 표정으로 아래 위를 훑어 보더니 못들었다고 하면서 빙긋 웃는다. 후다닥 극장으로 뛰어 들어 갔다. 극장에서 나와 나는 순천시내에 있는 모든 신문사를 찾았다. 나의 어리석은 물음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묘한 기쁨을 느꼈다. 5시쯤 길을 걷

다가 어느 상점 앞에서 우뚝 서 버렸다. 저기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가 제 3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아닌가, 뭐 생각 할 것도 없이 상점에 뛰어 들어가서 라디오 앞에 섰다. 10명의 명단이 발표된다. 너무 적다. 미처 그 생각이 끝나기 전에 내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아나운서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건 분명 충격이었다. 나는 상점주인을 붙들고 늘어졌다. ‘방금 아나운서가 김태× 뭐라고 했지요?’ 그 날 나는 미쳐버린 것이다. 그는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한다. 나의 불안정한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나는 거기서 곧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집으로 시외전화를 걸었다. 전화통에다가 대고 방금 발표가 있었는데, 내 이름을 못들었느냐고 소리쳤다. 그런데 멀리서 들리는 것은 누나의 울음섞인 목소리다. 안됐다는 것이다. 그럼 그 소리는 환청이었단 말인가? 다시 서울에 있는 신문사로 지금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번호와 이름을 대고 난 얼마 후 ‘그러한 이름은 명단에 없는가 봅니다’하는 정중한 목소리의 확인을 받았다. 그저 아무런 기분도 없었다. 감정의 백지상태였다. 아니 왜 그리 외로웠을까?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모님 곁으로 가고 싶었다. 그 날 나는 절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3회 합격자로서 내이름과 비슷한 분을 요사이 만나면 나는 작년의 그 일을 생각하고 혼자 빙그레 웃는다).

IV. 다시 절에서

다시 쌍경사로 와서 서울 형님께 편지를 냈다. 그 편지를 쓴날 형님으로부터 내가 그 때 받은 점수가 59.28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법시험! 마치 아슬아슬한 곡예와 같다.

형님께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 저는 여전히 절 생활을 계속하면서 수험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 실패한 걸 알고, 실망의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는 어쩌면 숙명같이 되어 버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 몸부림치고 싶었으나 다음의 시험을 위하여 너무 실의에 젖고, 너무 감상에 빠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쇠하신 아버님, 어머님을 또 상심시켜 드린걸 생각하니 아무래도 불효의 죄책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집에 갔을 때 이제는 아버님 어머

님의 모습에서 피로의 기색이 깃든 것을 발견하고, 절간으로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고개를 외면하며 눈물마저 흘렸습니다. ……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눈도 참을 수 없지만, 제가 저 자신을 열등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법시험! 그것이 저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꼭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기분이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희생시킨 것을, 그러나 사법시험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것보다 몇 번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정복해 버리는 것이 모든 점에서 저에게 이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젠가는 꼭 합격할 것 같다는 기분을 하나의 신념으로서 받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념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보려고 합니다.

형님! 제가 지금 가장 괴로운 것은 부모님을 위시한 우리들의 훌륭한 가정에 있어서 제 위치를 잘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불효자식이 아니라면, 제가 형제에게 죄인이 아니라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실망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것이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눈을 감으면서 당분간은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반드시 끝이 있을 이 길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부모형제에 대한 실망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

V. 제4회 사법시험 준비

1. 보광사 생활

9월 10일경 쌍경사에서 나와 여수시내를 환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중턱에 자리잡은 조그만 절(보광사)에 방을 얻어 4차 돌입에 들어섰다. 연내로 제4회 사법시험이 실시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치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제4회 사법시험 정복을 위한 작전계획표’라는 거창한 제목 하에 꼬박 하루를 소비하여 이른바 작전계획을 수립, 노트에 적어 놓았다. 시험 전일까지의 시간표, 그 동안 경험으로 얻게 된 공부방법, 그리고 각 법률잡지의 채점평에서 고시위원들의 단편적인 답안작성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써

놓고 그것을 매일 한 번씩 읽으려고 노력했다. 시간표는 너무 세밀하게 작성했으므로 중간중간에서 차질이 생겼으나 큰 변동은 없었다.

2. 공부방법

이번에 특히 주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서 중심의 철저한 정독

나는 애초에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 버릇이 잘못 들어서 쓰지 않고는 책을 읽을 수 없도록 되어 버렸다. 제1회 사법시험 때는 이렇게 쓴 것을 모아놓은 대학 노트가 무려 30권 가량되었다. 2회 사법시험 때는 서브 노트를 작성했는데, 웬만한 문제는 빠지지 않아 제일 적은 형사소송이 60문제나 되었다. 기본서는 그 때까지도 세 번 정도 밖에는 보지 못했다. 정독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쓰는데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2회 사법시험 때는 시험 전 한 달 동안을 기본서는 팽개쳐 버리고 서브 노트만을 외우는데 보냈는데, 그 때 성적이 가장 나빴다. 일반적으로 서브 노트라는 것은, 특히 나의 경우와 같이 전문제를 망라한 것은 기본서 만큼 정확하지도 못하고, 물론 자세하지도 않다. 그리고 서브 노트 위주의 공부를 하면 시험 당일 바쁜 마음에 쫓겨 자연 서브노트식의 답안을 만들어 버린다. 일단 시험위원들에게 이러한 답안이라는 인상이 박히면 그 성적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 그동안 나의 경험이다. 또한 시험이 임박해지면 극도로 예민해진 신경이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쓰게 하는데, 기본서 이외에 서브 노트까지 있으면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갈팡질팡하다가 아무 것도 착실히 못하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작년 3회 시험 때 나는 내가 작성해 놓은 서브 노트에 치인 꼴이 되어 서브 노트를 보자니 기본서 생각이 나고, 기본서를 보자니 서브 노트 생각이 나서 어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다. 나는 그 때 결판을 내려 서브 노트 중에서 전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만 떼어 기본서에 붙여 놓은 다음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서브 노트를 모두 찢어 버렸다. 그리고 기본서를 1회 철저히 정독을 하고, 3회 시험에 임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방법을 택했다.

(2) 전체와 원리

법률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묻는다면 나는 '전체와 원리'라는 개념 속에 그 해답을 집약시키겠다. 지극히 논리적인 법률학은 책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것은 언제나 전체에 연관되어 있고, 어느 원리에 포섭되어 있다. 전체에 안

목을 두고 원리를 찾아낸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좀 건방진 말일지 모르나 사법시험공부는 성공했다고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나대로의 도표를 작성했다.

(3) 읽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고, 읽고난 후 육법전서의 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를 한다.

시험장에서 육법전서를 내어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법전서를 잘 활용하여 답의 반을 보고 쓰라는 것과 같다. 이 점에 착안하여 나는 3회때부터 책을 읽고 나서는 반드시 육법전서의 조문을 한 자 한 자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였다. 물론 답안의 구성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나는 형법까지도 육법전서 중심의 정리를 하였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든든할 뿐 아니라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번 4회 시험 때의 민법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64점 가량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행정법에서 실패가 없었던 것도 육법전서 때문이었다.

(4) 중요 법률개념의 정의는 외워 놓는다.

어느 합격기를 읽고 나도 그대로 해볼려고 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5) 머리 속에서는 언제나 답안구성 그대로 될 리가 없다.

(6) 매일 아침 전날 본 것 중 중요문제 상기

처음 얼마 동안은 이것을 시도해 보다가 귀찮아서 포기해 버렸다.

(7)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여하튼 이해시켜 놓는다.

그것이 덜컥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애썼다. 한 때는 겨우 두 페이지를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박혀 있는 적이 있었다.

(8) 공상이 들고 졸음이 올 때 답안작성을 하여 본다. 글씨를 깨끗이 그리고 빠르게 쓰는 연습

(9) 문제를 뽑아서 공부하는 방식은 결코 취하지 않는다.

(10) 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워낙 몸이 피로하면 규칙적인 생활이 될 리가 없고 또 규칙적인 생활만으로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일부러 적어 놓은 것은 사실은 몸에 너무 마음을 썼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에서였다. 규칙적인 생활이니, 적당한 운동이니 하는 것은 냉수마찰식의 건강유지법이고, 우선 손쉬운 것은 약물요법(?)이다. 나는 무리를 해서라도 웬만한 영양제는 모두 복용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써 엄청나게 몰아 닥치는 피로를 해결할 수 없어 작년 여름 이후부터는 카페인류의 각성제를 사용했다. 그러나 밤에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 데도 낮에 몰아닥치는 졸음을 쫓기 위해서 주로 아침에 그것을 사용했었다. 그 약의 사용작용이었는지 시험공부 중 얼굴이 부어 올라 애를 먹었다. 위장탈이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라고 할까?

(11) 일기를 썼다.

패배자의 자기 합리화는 독단과 위선을 가져올지 모르나 어떤 면에서는 위안을 준다. 그것이 한갓 자위에 불과하긴 하지만 내가 노린 것은 그 일시적인 위안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나대로 패배를 합리화시키지 않고는 열등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기를 쓴 또 하나의 이유는 글씨 연습에 있다. 나는 굉장한 악필인데, 매일 매일 깨끗한 글씨의 일기를 쓰면서 가능한 한 고쳐 볼려고 했다.

VI. 답안작성요령

다음에 적은 것은 각 법률잡지의 채점평에서 고시위원들의 단편적인 답안 작성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더욱 체계적인 정리를 바란다. 그리고 교수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내가 생각해 본 것이다.

1. 문제를 직시하라

문제의 뜻을 간파하고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라(강병두 교수).

2. 물어본 것만 쓸 것

처음부터 바로 본론에 뛰어 들어 갈 것이며, 허용된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이 풍부한 답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주재황 교수).

3. 구 상(체계)

답안 전체의 구상을 언제나 머리에 세워두고, 비중에 주의하여 조화를 잊지 말 것. 쓸 것은 다 썼다 할지라도 그 이론적 전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서 선명치 못한 것은 물론 불리하게 채점되는 것이나, 아무렇게나 나열해 놓은 것으로서 쓸 것은 다 썼으니 성적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이다(김기두 교수).

4. 문장력 및 표현력

(1) 간결한 문장, 간단명료하게 아는 그대로 쓰는 것이다(김기두 교수).

(2) 내용의 표현력이 풍부하고 정확해야 한다(권오병 위원).

(3) 중복은 가장 금물, 왜냐하면 중복이 있으면 이론의 일관성과 선명성이 소실되기 때문이다(한태연 위원).

(4) 앞뒤가 논리정연하여야 한다. 산만한 지식의 모자이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장이 되지 아니하고, 기자의 메모식으로 요약만으로 나열한 답안은 내용이 신통치 않은 것이 보통이다(이경호 위원).

(5) 문장이 짧더라도 핵심만은 간략하게 서술한 것은 오로지 쓸데없는 설명을 길게 늘어놓은 것보다 합격점을 넘고 들어가는 것이다(나향운 판사).

(6) 교양 있는 말버릇 : 반대설이 있는 경우에 '반대설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하는 식의 표현은 삼가야 한다. 수험자의 교양 없는 말버릇은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이경호 위원).

5. 분량

의심나는 것은 쓰지 말고, 쓸데없는 것은 아낌없이 삭제해야 한다.

6. 제목

(1) 직관을 살릴 것이나 반드시 기발한 것을 찾지 말 것. 제목, 그것이 하나의 내용이 되도록 할 것이며,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지나친 항목의 나열은 삼가하라(강문용 교수).

7. 특 색

답안의 우열은 항상 다른 답안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논의되는 것인 만큼 어떠한 점에서나 다른 답안들과 시험관의 눈에 띄이는 특색이나 장점을 갖는다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첩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김도창 교수).

8. 글씨 및 전체적인 모양

(1) 항목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오자가 없이(한글로 써도 무방한 것을 애써 오자를 쓰면서도 한자(漢字)를 기입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깨끗이 쓴 답안은 역시 몇 점이나 얻고 들어가는 것이다(나항운 판사).

(2) 글씨는 될 수 있는 한 크게 쓰는 것이 좋다.

(3) 격행(隔行)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다(박관숙 교수).

9. 조문 참조를 잊지 말 것

10. 일반적인 문제

고등고시의 답안으로 요구되는 것은 내용이 상세하고 치밀한 지식이나 심오한 학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응용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표현되었으면 합격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고등고시에 의한 테스트라 하여 무슨 기발한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법률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답안이면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답안 중에는 수험생이 아는 범위에서 답안을 작성한 후 그 작성한 답안의 분량을 증대케 하려는 의도에서 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사족적인 설명을 부가함에 있어 전혀 조리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내용을 써 넣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답안 작성법은 좋지 못하다. 요컨대,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평소와 같이 차분하게 스스로 틀림없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표현하면 족한 것이다(방순원 판사).

11. 구체적인 방법론

(1) ‘…을 설명하라’는 식의 답안작성(예, 불완전이행을 설명하라)은 처음

부터 끝까지 설명하여야 할 대목을 빼놓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중 어느 것에만 치우쳐 필요 이상으로 깊은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하나하나의 타이틀은 상호 문제의 우열을 지을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는 만큼 전 타이틀에 대한 적당한 배려가, 말하자면 요령있는 답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김헌태 교수).

(2) ‘…을 논하라’하는 식(예,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처분을 논하라)은 기계적인 설명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설의 대립에 언급하고, 주관적인 의견을 가하는 것이 좋다. 학설은 이설에 대한 각별한 자신이 없는 한 통설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김도창 교수).

(3) ‘…을 논평하라’(예, 소원전치주의를 논평하라) 이는 실시법(實是法)의 해석 정도로는 부족하다. 먼저 의의를 쓰고, 다음에 본제도의 연혁정도를 간단히 소개하며,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한 다음 현행제도에 기준하여 장단점을 지적한 연후 결론으로 자신의 견해를 요약하는 정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질의 문제는 그 답안작성의 요점이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이규복 교수).

(4) ‘…을 비교하여 그 이동(異同)을 설명하라’(예, 계약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를…) 甲과 乙을 비교하라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甲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다음에 乙에 관하여 또 상세히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비교한 것이 되지 않는다. 수험생은 甲과 乙에 관해서 각각 따로 설명할 터이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은 채점자가 가려서 보시오라는 듯한 답안은 수험생 스스로가 비교한 것이 아닌 만큼 본문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교하라고 하면 수험생 스스로가 답안속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꼬집어서 적시(揭示)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동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니,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각각 추려서 열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제도의 취지 요건 행사 효과 권리의 소멸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항에 관하여 이동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대비가 문제되는 것은 얼른 생각해서라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양자의 유사점 내지 동일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것만을 먼저 말해놓고 각 개별 사항의 비교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김중환 교수).

12. 보충

(1) 이만하면 60점이 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최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답안을 쓴다.

(2) 사시는 자만하고 있으면 절대 합격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자기의 실력평가를 잘못하여 말도 안되는 틀린 답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겸허하면 우선 합격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자기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담백하고 논리가 정연한 틀리지 않는 답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겸허한 마음은 합격의 비결(어느 합격기에서)이다.

Ⅶ. 합격, 그러나 공허가...

시험을 마치고 꼼꼼히 생각해보니 만족스럽게 썼다고 생각되는 답안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최소한의 출혈을 방지하자는 일면으로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졌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7과목이 모두 지나갔다. 또 한 번의 사법시험을 보낸 것이다. 합격 여부, 이제는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불합격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상상을 피했다. 시험을 보고 나서는 언제나 그랬다. 그래서 더욱 더 고통이 컸는지도 모른다.

‘진인사대천명’나는 그 말도 싫다. 진인사했는데 어떻게 또 대천명까지 하라는 말인가?

나에게는 올 6월 22일에 입대하라는 징집영장이 나와 있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하는데, 나는 불합격 되었어도 그 날 입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절망감에서 그리고 가슴을 움츠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에 싫증이 나서 모든 걸 팽개쳐 버리고 군대라도 뛰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연기하는 것이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왜 사법시험을 그렇게 기를 쓰고 보려고 했느냐 하는 물음에 이제 대답을 해야겠다. 사법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식의 말은 나는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수험생활 중 그것은 제1차적인 것과는 너무 멀어 있었다. 내에 있어서 사법시험은 가장 쉬운 취직의 수단같이 생각되었다. 외국어 공부를 소홀히 한 나는 다른 취직시험이 사법시험보다 훨씬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사법시험은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어 있지 않는다.

물론 주위의 기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결연히 뿌리칠 결단성은 있었다.

사람들은 고시공부한 사람, 더군다나 시험에 몇 번 떨어진 사람은 마치 폐인인 것처럼 보아 버린다. 고시병 환자, 그렇게 말해 놓고는 색안경을 낀다. ‘마치 고시가 인생의 전부인양 바둥대는 고시병 환자와 같이’하는 말이 하다못해 영화의 시나리오까지도 번번히 튀어 나온다. 그들은 우리들이 ‘적당한 사회적 지위’에 기를 쓰며 손을 뻗치고 있는, 흔히 쓰는 말처럼 속물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들을 왜 의지투성으로 보지 않는가, 도전이 문제지 일단 도전했으면 그 곳에서 결판이 나야하지 않겠는가, 걷어채인 자는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복이 문제다. 하기가 그것은 저돌이다, 맹목이다, 하고 단정해 버리면 할 말이 없다. 여하튼 사람들은 항상 과거는 잘 잊고 현재에는 민감하다. 오욕(汚辱), 수치가 모두 과거만 되게 하라.

수험생활에서 얻은 가장 가치있는 것은 성실하라는 것이다. ‘성실하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이 평범한 진리를 나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이다. 잔피를 부리고 요령을 찾는다는 것은 최소한 사법시험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던 ‘고시는 기술이다’하는 말이 밋다. ‘고시는 성실이다’누구의 형식을 빌면 사법시험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법시험은 그것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나, 그렇다고 오만한 자가 쉽사리 넘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다.’

2월 15일 오후 5시, 뉴스로 나는 합격을 처음 알았다. 아나운서가 미처 내 이름을 말하기 전에 나는 번호만을 듣고 크게 소리쳐 버렸다. 기쁨! 그리고 공허다. 왜 눈물이 나왔을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서 나는 분노를 느꼈다. 시험이란 놈, 것처럼 젊은이를 괴롭히고 구속할 수 있을까. 신문 한 장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올림픽이 어찌고,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서, 그것은 사치가 되어버린다. 자기가 아무리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제시하는 제도, 시험에 자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만다. 그는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 동안에 적었던 일기를 뒤적여 본다. 수험생활,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나 초조하고, 불쾌하고 그리고 피로한 생활이다. 도서관 옥상에서 광화문쪽의 네온불빛을 바라보며 쓸쓸했다는 기록도 있다. 절벽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하숙방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몸부림 치던 때도 있다. 무엇인가 부딪치고 싶어서 진탕 술을 마시고 넓은 거리에서 발악을 했다. 그 날 나는 경찰서에서 고막이 터졌다. 밤 9시가 되면 시내 어느 교회에서 치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찾아 든다. 그 영롱한 선율 때문에 나는 매번 도서관 어느 자리에서 감상에 젖곤 했다. 지금 사법대학원 기숙사에서 이 글을 쓰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 밤 9시인 것이다.

VIII. 맺으면서

끝으로 합격기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의 이것이 조금이라도 영광이 된다면 이것을 송두리째 나의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다.

너무 늦기도 하고 또 이런 성질의 말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나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합격은 오로지 부모님의 지고한 정성의 결과이기 때문에……